

사소한 일에도 불쑥불쑥 화가 난다면...



화-욕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 틈텐 초드론 지음 | 미디어월 퍼냄

덥고 짜증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기 십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화 내는 것도 버릇이라 자주 내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몸에 밴 익숙한 반응으로 화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화-욕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왜 화가 나는지부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직하게, 평화롭게 이야기한다. 읽다보면 시나브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오염된 마음속 거울을 닦고 싶다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비람같이 | 전재성 지음 | 선재 퍼냄

'저지 상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인 수행자 페터 노이아르의 한국방문기를 담은 책이다. 페터 씨는 독일 쾰른 대학 숲 속에서 누더기 한 벌만을 걸친 채 하루 한 끼만을 탁발하면서 20여 년을 살아 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은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이 책은 서양의 수행자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인 동시에, 깨달음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휴가지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맑고 향기로운 수행자의 삶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속진에 오염된 마음의 거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한적한 사유의 글맛을 느끼고 싶다면...



동자승 말씀이 가마막혀 | 문형렬 지음 | 도솔 퍼냄

이 책은 동자승과 노승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집이다. 불교적 소재와 사유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나이 어린 스님이자 탐욕, 시기, 질투심이 없는 해맑은 동자승을 앞세워 현대인의 삶 방식을 꼬집는다.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변화무쌍해지는 이 시대에 느림, 혹은 뒤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동자승의 행동을 빌어 말한다. 이 책의 동자승은 결국 우리 인간이 닮아야 할 존재인 셈이다. 특히 산사나 계곡 등 한적한 곳에서 맑은 물소리를 배경삼아 읽으면 사유적인 글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도수 스님(정법도량 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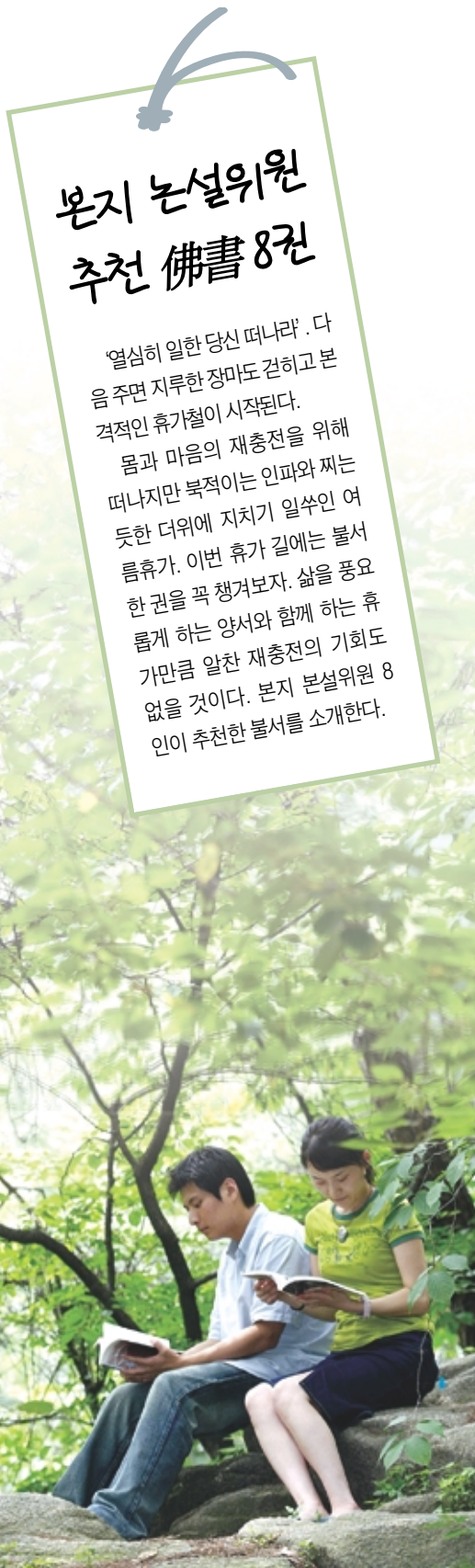
지금 이순간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지음 | 마음의 숲 퍼냄

"제가 쓴 책을 직접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쉬러가는 휴가지에서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해 감히 추천합니다. 마음을 쉬는 비결들을 틈틈이 담아 놓았거든요."

월호 스님은 죽음을 '몸 바꾸기'라고 말한다. 마음의 옷에 불과한 몸뚱이를 잘 갈아입기 위해 우리는 지금 삶에 충실해야 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하게 살면서 옹서하고 사랑하는 삶만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길입니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추천 佛書 8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음 주면 지루한 장마도 견고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북적이는 인파와 짜는 듯한 더위에 지치지 일수인 여를 휴가. 이번 휴가 길에는 불서 한 권을 꼭 챙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께 하는 휴가만큼 알찬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본지 논설위원 8인이 추천한 불서를 소개한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고 싶다면...

여행생활자 | 유성용 지음 | 갤러온 퍼냄

이 책은 여행가이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자의 내밀한 기록이다. 저자에게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나를 잊고자 떠나다가 오히려 나를 찾는다.

남루함과 가난 외에는 찾을 것이 없는 티베트 등 외진 세상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저자는 외딴섬처럼 사진을 찍어내고 그 곳에서 빛나는 삶의 진실들을 캐낸다. 풍부한 감수성으로 짙어 내려간 여행기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최근 해외 출장을 떠날 때 이 책을 꼭 챙겨가는 이유다. <이우상(대진대 교수)>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 오래된 미래 퍼냄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문명을 등지고 윌드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자연주의자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은 빈둥거리는 소로우를 삶의 실패자로 바라봤지만 신학자 블레이크는 그의 위대한 정신을 알아보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그 편지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다.

소로우가 남긴 이 편지글에서 삶의 명철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책 분량도 작고 활자 크기도 커서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윤정(수필가)>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불교가 좋다 | 가와이 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 동아사이 퍼냄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편견을 떠나 말하건대, 불교는 분명 '매력'적인 종교다. 역시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두 지식 가와이 하야오(1928~)와 나카자와 신이치(1950~)가 예의 불교의 매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불교와 성(性)의 문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 과학문명의 폐단에 대한 불교적 대안, 부정(否定)을 통한 불교적 성찰, 불교가 가진 현대성 등 그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올다'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올다'는 것을 증명하는 불교가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김정재(연문인)>

열대우림 속 세상이 궁금하다면...

열대우림 정글 | 마거릿 D로우먼 | 갤러온 퍼냄

가족이 함께 열대우림을 탐사하며 아나콘다와 피라냐를 만나고, 전체 요리로 귀뚜라미를 먹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정글을 돌아다니느라 두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종종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마존에서 손에 진흙을 묻히고 새를 관찰하고, 직접 실험을 설계하면서 환경과 지구에 대한 넓은 시각과 사고를 창조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불서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휴가지에서 둘러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윤재학(동화작가)>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서용 대종사 인가제자, 영홍 선사님의 선禮 어록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영홍 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 2007년 5월 발행 / 13,000원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튀는 법거랑과 함께 영홍 스님의 오도(悟道) 체험 등 구도기가 1인칭 화법으로 서술돼 있다. - 현대불교신문

영홍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맛깔스럽지만 감동있게 전해지는 큰스님들의 법거랑은 죽비처럼 등을 후려치는 가 한 때로 감초처럼 목을 축여준다. - 법보신문

근·현대 선사 30여 분과 주고받은 생생한 법거랑 95개를 책으로 엮었다. 부처님 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 불교포커스

이 책 한 권이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대덕 스님들의 벼락같은 선문답을 통해 누구나 선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 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주간불교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 아니라, 수행의 자름길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 금강불교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또 다른 이가 나를 낳으리

글 박진여 · 최영식 / 2007년 7월 발행 / 10,000원

화제의 신간!!

영혼을 재테크하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인연으로 대통령이 되었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전생은 이순신, 이성계, 최제우였다. 그리고 영조대왕과 승려 지룡이 이 땅에 다시 온 까닭은?

이 책은 뛰어난 영적능력을 지니고 명상연구에 매진하는 박진여 씨와 최영식 씨가 쓴 글로, 현실속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비관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에 소개된 윤회론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늘의 나침반처럼 그리고 빛나는 북극성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려준 명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오늘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영혼을 제테크 하는 것임을 말해 주는 책이다. - 불교 TV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빌리는 736호 전화 02) 2198-5151 / 051) 244-1251